

### 목어 인권 짓밟는 물고문



대검 감찰부는 8일 피의자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잠정 결론이라고 토를 달긴 했으나 고문행위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물고문 이라니.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각종 공안사건 조작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빼아프고 슬픈 기억들. 그것이 최근 인권정부 아래서, 인권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검찰청사내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 사건 책임자의 입에서 '큰 실수' 운운하고 일각에는 '조폭 잡으려다 한 실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동정론이 이는 것 역시 후진국적 사고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검찰 청사 안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명명하는 것도 옳바르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고문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채택되지 않고, 유죄로 최종 확정 될 때까지는 누구도 행위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명제는 이 원칙이 어느 누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가기도 하다.

이번 파문은 몇몇 고문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는 별반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각급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인권존중 의식을 일깨우는 스스로의 자성과 노력이 요청된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활동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르는 지를 여론은 주시하고 있다.

안이한 판단으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존엄의 가치에 대한 몰음이기 때문이다.

이강렬(희곡작가협회 명예회장·본지 논설위원)

### 불자 세상보기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포교사회학과

불교 10여 년 전만 하여도 정보화 사회는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 명이 넘어서는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소식이 가슴 뭉클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의 성과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현신한 기술인력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매체 활용에 대한 열망과 적응능력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을 여행해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사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정보사회가 이룩되면 경제활동이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매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용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보매체 이용자의 자존적 의식의 결여와 무명(無明)의식에서 비롯된다. 일부 게임프로그램이나 도박 프로그램이 중독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그러나 인터넷으로 반사회적이거나 반윤리적인 상품을 판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윤리교육과 규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할 경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

들이 밝은 지혜로 탐하고, 어리석고 분노하는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사회를 정신적으로 선도할 지도자가 다양하게 육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바로 무지와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중생을 제도할 인터넷포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포교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보매체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사회를 선도할 인력이다.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비의 눈으로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정보의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는 지혜와 정보기술과 매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인재가 배출되어야 한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화 선도할 사이버 포교사 시급

로 향상되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고도정보사회에도 명암은 항상 존재한다. 이미 우리사회에도 인터넷 게임의 중독, 저질 음란물의 과도한 유통과 범람, 자살사이트의 운영, 불건전한 만남의 도구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혼동하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중독에 취약한 인간심리를 악용하여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둘째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정보매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매우 정상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보주체를 사이에 필요한 게임의 규칙과 도덕성이 실종된 사이버 아노미 현상이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정보사회를 사는 사람

## 열린 마당

### 서양불교 성장과 한국불교 미래

불교포럼은 13일 동산통교회관 2층 강당에서 '서양불교의 성장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산 스님(백양

#### 미산 스님

(참사람수행결사 수행원장)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불교인구가 약 200만에 이르며, 미국에서 동양의 수행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약 1천 5백만에 이른다. 서양에서 불교가 이토록 급성장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식층이 불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여·생활 수행불교라는 서양불교의 특징도 한 몫을 했다.

이처럼 서양불교가 급성장하는 반면 한국불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적인 문제점을 보면 출가자들의 체계적인 인

#### 급성장 서양불교를 거울로

성교육과 바른 불교적 가치관과 세계관 정립의 미비, 소의 경건인 금강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와 종론 및 종학 정립의 미비, 소의 경건에 입각한 참선수행의 이론과 실제의 미정비,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의단(疑團) 행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수행체계의 빈약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화선의 체계 정비와 다른 수행법에 대한 관계 정립, 간화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호흡관념이나 수식관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또 재가전문 지성인들을 위한 수행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향상을 위한 불교 전문어학당의 설립도 필요하다.

#### 진월 스님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

미국에서 백인 엘리트들이 불교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근래에 소가 가까이(ISC) 회원들이 확산되고 있는 바, 그들의 대다수는 영세 서민인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백인 엘리트 불교라고 할 수 없는 '흑인 대중불교'의 저력도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3수행법이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전통 수행체계 확립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근거에 맞는 눈높이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 눈높이 수행체계 확립해야

무엇보다 시급하다. 서양불교가 한국으로 역수입 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비록 동양에서 건너갔지만 서양불교는 체계적 문헌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서에 잘 맞았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 어느 스님이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이나 강원룡 목사 등이 거론된다. 이는 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승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 이동호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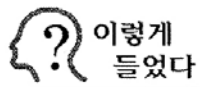
(발틱연구소장)

사회속의 지도적인 위치의 소위 엘리트 계층이 불교보다 기독교에 많이 편향된 것도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는 해방 후 미국의 통령 공세에 의한 것이지만 최근 각종 출판물 등으로 볼 때 대중불교로 많이 이행되고 있어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제3수행법에 관한 문제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떠나서 수행자체가 부실해 여러 가지 수행법이 유입되었다고 본다. 즉 우리 자체의 독특한 수행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 수행 전념시 불교중흥길 열려

이다. 승가에서는 한 번쯤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여성불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불교는 인권 문제와 직결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2004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여성 불교대회에서 불교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볼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서양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양사회는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행자가 수행에 전념할 때에만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편견과 차별

### 온갖 존재는 실제 없고 평등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초·중·고 교과서의 내용 중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 등 총 13개 항목을 지목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인권위가 지적한 교과서 내용 가운데, 고교1학년 사회과목(디딤돌)의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가정부'라는 특정 직업을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1학년 체육과목(교과서의 '소음수준은 꽤 민감한 부위'라고 남성과 차별하여 서술한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특히 인성 개발과 가치관 정립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권위의 수정권고를 모두 수용해 국정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이 받았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인권의식은 풀이킬 수 없다.

國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國세상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남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사차니건자 소설경>

國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버이고 땅은 어머니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겠는가. <보문품경>

國온갖 존재는 실제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인연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 불자의 생각

#### 자녀의 종교

불자님의 자녀가 타 종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 조사 결과 총 응답자 91명 가운데 43명(47%)은



#### 타종교 믿는 자녀, 불자로 만들겠다 87%

설득하여 불자가 되게 한다. 36명(40%)은 일단 인정하고 차츰 대화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 12명(13%)은 인정해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불자님의 자녀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나는 질문에는 90명(99%)가 없다고 답변했다. 있다 라는 의견을 밝힌 불자는 1명(1%)에 불과했다.

김두식 기자

## 장수 정보 불로 초

### 美國 기적의 불로 초

#### 120세 장수 스피루리나

##### 미국 NASA 우주국 건강센터 발견

▶ 스피루리나는 다른 식품과는 달리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주인이 달나라 갈때 스피루리나를 복용하는 이유도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 1981년 캘리포니아 남태평양 바다속 1000m이상에서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20년의 연구와 임상으로 인간이 120살까지 병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NASA에서 장수 한다는 뜻으로 스피루리나라고 불린 이 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중 가장 오래사는 것이다.

1982년 5월 미국에서 연령별로 10명씩 스피루리나를 복용시킨 결과 80세에 드신분들은 현재 101세며 4분만 돌아가시고 현재 6분은 건강히 활동하고 있다.

스피루리나에 대한 신비의 정체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2개월만 드시면 산성화된 세포를 약 알카리세포로 바뀌는 것으로 임상되고 있으면 건강할때 드시는 것이 최고 좋다고 한다.

▶ 효능 · 효과 - 적게는 감기, 알레르기부터 크게는 암까지도

▶ 국내 유명 대학교 저명 교수들이 추천한 자료와 제품을 먼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 전립선염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하는 전립선염, 비뇨, 야뇨, 소변후 물때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 국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

- 1)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2)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3)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4)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6)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7) 평소 잠을 자다가(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 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당달과 비단만 천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지리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심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비린내를 글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참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참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시간을 달인다. 여기 마는 생강 대추를 넣고 2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참다슬기 기름 참다슬기 15kg를 항아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넣은 뒤 황겨에 물을 끓여 그 열로 참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참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타들어 가지게끔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 자연속 수행의 요람 경주 여래선원

### (비구니 선원)분양 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는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선원의 수행처 여래선원을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 종합병원, 경부고속철도 신역사가 각 5분 거리의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건강을 위해 선도산 자연생수를 평생 무료제공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성왕리 분양증

- 총면적 : 약 17평명
- 입주 예정일 : 2003년 10월
- 분양 입주금 : 6,000만원

(아침, 점심 공양 평생 무료제공) ※ 공양제공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입주금 : 5,500만원

금선사는 이미 금선선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누구보다 비구니선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경북 경주시 충효동 193-2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